

빛의 길

(부활에서 성령 강림까지의 14처)



황새바위순교성지

차 례

‘빛의 길’이란?__3

빛의 길 I __6

빛의 길 II __21

빛의 길 (부활에서 성령 강림까지의 14처)

빛의 길을 소개하며...

‘빛의 길’은 예수님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부터 성령 강림까지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최초의 ‘빛의 길’은 로마 아피아 가도에 있는 제16대 교황 성 갈리스토 1세(St.Calixtus I 제위 217~222)의 카타콤(비밀 지하 묘지) 벽에 새겨진 모양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후 신심행사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1990년 살레시오회 사비노 팔롬비에르 신부가 갈리스토 1세 교황의 카타콤에 새겨진 내용과 4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활 후의 열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빛의 길 14처’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곳 황새바위 성지에 와서 ‘빛의 길 14처’를 처음 보았습니다. 참으로 기뻐고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우들이 주님 수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지만 너무 고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부활의 기쁨, 영광의 빛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통해 주님 수난에 동참하여 주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의 부활과 기쁨을 살도록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순 시기는 말 그대로 사십일 동안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부활시기는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입니다. 고통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기쁨을 사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만큼 부활의 기쁨을 사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전례시기가 말해줍니다.

정진석 추기경님께서서는 일찍이 ‘빛의 길 기도’를 추천하시면서 이

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시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덤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부활 대축일의 장엄한 미사에 참여하고, 부활달걀과 축하의 말 몇 마디를 나누고 나면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로 사도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하고 권고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가 신앙의 점검 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교우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감사로이 사십니다. 그런데 ‘기쁨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인은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구원받았고 주님 부활을 통해 빛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니고 빛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빛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초대받은 설레임에, 빛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 공주에 전해오는 소금 장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찍 아내를 여인 홀아비가 이집 저집 구걸하며 살다가 누군가의 권유로 빛을 얻어다가 소금 장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도나도 소금 장사를 하는 통에 소금 장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여에서 공주집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금치 고개에서 금강 쪽을 바라다보니 하얗게 소복한 사람들이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한참을 쳐다보아도 몇 사람이 똑같이 춤을 추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사람들이 “천주학쟁이를 잡아 죽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소금 장수는 관아로 발길을 돌립니다. 언덕 위에서 덩실덩실 춤추며 올라가던 사람들은 황새바위에서 순교한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자기도 천주학쟁이로 자처하면 것처럼 웃으면서 저

승에 가지 않을까 생각했고 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천주학생들이 저처럼 웃고 춤추며 하늘로 올라간다면 옳은 일을 위해 죽어가고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소금 장수는 관아에서 “나도 천주학생이요, 나도 잡아가지오”라는 소리에 포졸들은 처음엔 미친놈 취급했지만 계속해서 천주학생이라고 소리치는 통에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심문해 보니 천주학생이 아니었지만 “이런 놈은 나라에서도 쓸모없으니 이 기회에 죽여버리자”해서 순교자들과 같이 처형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천주교인을 처형한 장소이기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냥 옛날이야기로 듣기에는 그 배고픔과 가난의 설움, 고통 중에 바라본 순교자들에 대한 동경이 상상되어 가슴에 남습니다. 순교자들의 웃음과 춤은 빛으로 향해가는 기쁨의 여정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각 처마다 순교자들의 어록을 알맞게 담아 보았습니다. 기왕 충청도에 오셨으니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순교자들의 마음을 여유 있게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길 작품도 보시고 새소리도 들어보시고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스한 별을 느껴보십시오. 많은 교우들이 이 빛의 길을 걸으며 부활의 기쁨을 살고 빛으로 가득한 신앙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문을 정리해주신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황새바위순교성지 전담 사제 노승준 세례자 요한

빛의 길 I

빛의 길 14처 묵상 글 안내문

이 묵상글로 바치는 **빛의 길 14처** 기도는
일반적인 십자가의 길 기도문처럼
이동할 때나 각 처에서 고개 숙여 바치는 기도가 없습니다.
단지 빛을 담고자 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 기쁨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낭송하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낭송하시는 시처럼
차분하게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빛의 길 14처**가 새겨지며
주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감격으로
뜨거운 가슴이길 기도합니다.

“너를 위한 시 14편”

제 1 처

나는 빛으로 부활하였다

“나는 빛으로 부활하여 너를 이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고통과 모욕,
수치심과 죽음의 어둠은
부활의 빛으로 다 사그라졌다.

슬픔과 죽음이라는 뒤를 돌아보는 시간에서
기쁨과 생명이라는 앞을 향해가는 영원으로

나는
너를
건너가고 지나가게 이끄는 빠스카.

(묵상에 머무른다)

영광송

성령님께 청하오니 빛을 향한 생명의 길 함께 걸어 주소서.

제 2 처
나는 제자들에게
나의 빈무덤을 비추어 주었다

"나는 빛으로 부활하여 너를 이끈다."

내 죽음을 보러 온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랴?

보여주지 않음으로 빛을 드러내었다.
비어있음으로 가득 채운 나의 빛이다.

빈 무덤 체험은
제자들에게 두고두고 보여주게 되는
나의 빛이요 생명이다.

(묵상에 머무른다)

영광송

성령님께 청하오니 빛을 향한 생명의 길 함께 걸어 주소서.

제 3 처

나는 막달레나를 빛으로 이끌었다

"나는 빛으로 부활하여 너를 이끈다."

슬픔과 어둠 중에
나의 죽음을 찾는 막달레나에게
나는 기쁨을,
생명을,
빛을 보여주었다.

절망 중에서는
희망으로 이끄는 나를
알아볼 수 없다.

이를 깨닫도록
서로를 부르며
사랑의 기억을 불러 일으킨다.

마리아야!
라뿌니!
서로를 부르며
언제까지나 빛으로 머물러 있기를...

(묵상에 머무른다)
영광송

성령님께 청하오니 빛을 향한 생명의 길 함께 걸어 주소서.

제 4 처

나는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빛을 거닐었다

"나는 빛으로 부활하여 너를 이끈다."

절망과 좌절로 인해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제자들과,
실망과 슬픔으로 인해 어둠을 걷고 있는 제자들과
나는 함께 걸었다.

내가 죽고 부활한 곳을 등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빛을 깨닫게 할까...

한걸음 한 구절
빛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에 타오르는 기쁨을 전한다.

(묵상에 머무른다)

영광송

성령님께 청하오니 빛을 향한 생명의 길 함께 걸어 주소서.

제 5 처

빵을 쪼개면서 나를 빛으로 드러내었다

"나는 빛으로 부활하여 너를 이끈다."

나로 인해 완성된 말씀을 기억하니
나를 내어준 빵의 기억도 되새겨주리라
감사와 찬미의 기도로 시작했던 빵의 기적,
빵을 떼어 나누어 주면서
내 몸을 너희에게 빛으로 안겨준 표징이니
나를 기억하고 빛으로 돌아오라
빛으로 향하기를...

(묵상에 머무른다)

영광송

성령님께 청하오니 빛을 향한 생명의 길 함께 걸어 주소서.

제 6 처

나는 제자들을 평화의 빛으로 이끌었다

"나는 빛으로 부활하여 너를 이끈다."

죽음을 이겨내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내가
평화의 빛을 너희에게 건네며 인사한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잠겨있던 문, 나를 유령으로 보는 눈에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너희이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니,

그때가 되면
평화를 나누어주는
내 손과 발처럼
평화의 빛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를...

(묵상에 머무른다)

영광송

성령님께 청하오니 빛을 향한 생명의 길 함께 걸어 주소서.

제 7 처

나는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빛을 주었다

"나는 빛으로 부활하여 너를 이끈다."

어떻게 빛의 기쁨을 전할까
빛의 세계로 어떻게 이끌까

용서와 화해의 빛,
아담을 부르고 너를 부르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비춰왔던 용서의 빛을
부활한 내 숨결로 너에게 새긴다.

용서하는 기쁨, 용서받는 기쁨
이 빛의 세계로 너를 초대한다.

(목상에 머무른다)
영광송

성령님께 청하오니 빛을 향한 생명의 길 함께 걸어 주소서.

제 8 처

나는 토마스를 믿음의 빛으로 이끌었다

"나는 빛으로 부활하여 너를 이끈다."

빛으로 부활한 나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묻노니
그대는 빛을 보고서야 믿는가?

빛이 있기에 볼 수 있으니
그대 눈은 빛을 담고 빛을 보는 것 아니겠는가?

내 빛에서 나온 빛
내 영에서 나온 영이여
그대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

(묵상에 머무른다)

영광송

성령님께 청하오니 빛을 향한 생명의 길 함께 걸어 주소서.

제 9 처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비추었다

"나는 빛으로 부활하여 너를 이끈다."

사람 낚는 어부들이
과거를 낚고자 호숫가로 갔으니
나는 부활의 빛으로 이들을 낚아
앞을 내어다보게 하리라.

153마리의 물고기,
피워놓은 숯불과 빵으로 준비하는 이 아침이
나처럼 식탁의 봉사자로 파견하는 의미이니
더 이상 과거에서 받아먹는 모습이 아닌
나누어주고 내어주는 성숙한 호수이기를...

(묵상에 머무른다)

영광송

성령님께 청하오니 빛을 향한 생명의 길 함께 걸어 주소서.

제 10 처

나는 베드로를 사도들의 으뜸으로 비추었다

"나는 빛으로 부활하여 너를 이끈다."

나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세 번 고백한 베드로에게
세 번 내 양들을 돌보라 명했다.

미안함과 죄와 부끄러움을 겪은 베드로이기에
양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고
거룩함과 강건함으로 이끌 것이다.
베드로는 앞으로 내 양들을 돌보며
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증명할 것이다.

나를 사랑해야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해야
나의 빛을 받을 것이다.
나를 사랑해야
빛으로 비취질 것이다.

(묵상에 머무른다)
영광송

성령님께 청하오니 빛을 향한 생명의 길 함께 걸어 주소서.

제 11 처

나는 사도들에게 선교 사명의 빛을 맡겼다

"나는 빛으로 부활하여 너를 이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뻐던가
그 기쁨을 너희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음에 더한 기쁨이다.
배우는 제자에서 이제는 파견된 사도로,
부활을 기쁨으로 선포하도록
이 빛을 맡긴다.

내가 그랬듯이
너부터 기쁨이 넘치기를
그래서 주변에 번지기를,
너부터 밝게 빛나기를
그러면 주변이 밝아지리니...

구원의 기쁜 소식이 힘있게 전해지도록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목상에 머무른다)

영광송

성령님께 청하오니 빛을 향한 생명의 길 함께 걸어 주소서.

제 12 처

나는 빛으로 승천하였다

"나는 빛으로 부활하여 너를 이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방식은
강생을 통해서, 수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전례와 기도를 통해서도 함께한다.

하늘로 오름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감이요,
모두를 비추고
모두에게 비취지며
너를 끌어올려 초대하기 위함이다.
나는 빛으로 승천하여 너를 이끈다.

(묵상에 머무른다)

영광송

성령님께 청하오니 빛을 향한 생명의 길 함께 걸어 주소서.

제 13 처

어머니와 사도들이 성령의 빛을 기다린다

"나는 빛으로 부활하여 너를 이끈다."

그렇게 한자리에 모이고
나를 기억하고
내 말을 되새기며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얼마나 꿈꿔왔는지 모른다.

이제 나는 위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성령을 청하며
빛으로 봉헌되기를 함께 기다린다.

(묵상에 머무른다)
영광송

성령님께 청하오니 빛을 향한 생명의 길 함께 걸어 주소서.

제 14 처

성령께서 사도들을 빛으로 파견하신다

"나는 빛으로 부활하여 너를 이끈다."

인류가 나를 기다려왔듯이
나는 성령을 애타게 기다렸다.
마침내 임하셨으니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지.
나에게 임하신 영은 순박한 평화의 영,
너희는 불허 모양의 성령으로
복음 선포의 열정을 토해내리라.

깨달음의 영을 담고
기쁨의 춤을 추며
축복의 빛을 노래한다.
나와 너, 빛과 영이 하나 되어
봉헌하는 삶이기를...

(묵상에 머무른다)

영광송

성령님께 청하오니 빛을 향한 생명의 길 함께 걸어 주소서.

빛의 길 II

‘빛의 길 II’ 기도는

부활 후 주요 장면이 담긴 성경 구절과 묵상 글,

각 처에 어울리는 순교자들의 어록을 함께 담았습니다.

❖ 일러두기 ❖

✦ = 선창자

◎ = 모두

● = 한 사람씩 돌아가며

★ = 순교자 어록

★순교자 어록 뒤에 첨부된 내용은

~~어록의 출처, 순교일, 순교 형식, 순교 장소, 순교자 나이입니다.~~

시작 기도

✠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빛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빛의 길은 십자가의 길의 연속이며
영광스러운 파스카 부활에서
성령 강림의 은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열어주신
빛의 길을 묵상하며 함께 걸으려 하오니
저희를 강복하시어
믿음을 굳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이웃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제 1 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그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마태 28, 5-6)

● 부활하신 주님,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가 구원의 희망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여, 마지막 날에

저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잠시 묵상)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복자 이도기 바오로

“정산 고을을 전부 주신다 해도 천주를 배반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성모 마리아님, 하례하나이다.” 하고 외쳤다.

포졸들은 돌과 몽둥이로 어떻게나 짓이겨 놓았던지 손바닥만 빼놓고는 몸의 한 군데도 상처가 없는 곳이 없었다. 시체는 이미 사람의 형상을 갖추지 않았었다. 옥사장은 그의 부인을 위로하며 말하였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12일(음력 6.12.) 밤에 큰 광채가 당신 남편의 시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오.”

달레 저, 『한국천주교회사』

1798.7.24. 장사. 공주. 55

제 2 처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함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찼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요한 20, 3-8)

● 부활하신 주님,

무덤을 향하여 달릴 때 땅은 울렁거리고
놀라 뛰는 가슴은 터질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믿은 진리,
당신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소서. 아멘

(잠시 묵상)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복자 이국승 바오로

부모가 혼인을 시키려고 하자, 가족 때문에 본분을 다하지 못
할까 염려하여 혼인을 거부하고 동정을 지키며 살기로 작정하였
다. 그럼에도 부모들의 재촉은 계속되었고, 그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이미 고질병같이
되었으니, 비록 형벌을 받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1801.7.2. 참수. 공주. 29

제 3 처

예수님께서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뿌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요한 20, 15-16)

● 부활하신 주님,

마리아 막달레나는 부활하신 당신을 뵈고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 기쁨과 용기를 얻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당신은 저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만나는 모든 이와 나누라고 청하십니다.
저희가 하느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순간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잠시 묵상)

-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복자 인언민 마르티노

관례에 따라 마지막 음식을 인언민에게 갖다 준 형리와 망나니들은 그를 옥에서 끌어내 사형 집행에 나섰다. 형을 받는 동안 그는

“그렇구말구.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 목숨을 하느님께 바치는 거야.” 하고 여러 번 되뇌었다. 마침내 망나니 가운데 하나가 엄청나게 큰 돌을 들어 그의 가슴을 여러 번 내리치자 턱이 떨어져 나가고 가슴뼈가 부서졌다.

김진소 외, 『(신유박해 순교자 전기집)순교는 믿음의 씨앗이 되고』

1800.1.9. 장사. 해미. 63

제 4 처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루카 24, 13-15)

● 부활하신 주님,

당신은 혼란에 빠져있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제자들이 마주한 좌절과 슬픔이

모든 일의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걸어온 길을 되돌려 벅찬 가슴으로 뛰어나는 그들처럼
늘 저희와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

당신을 따르는 길 위에 저희 발걸음 굳건하게 하시며
길의 목적지가 당신에게 하소서. 아멘.

(잠시 묵상)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복자 윤지충 바오로

당시 전라 감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음 소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임금이 나 부모의 명은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천주를 큰 부모로 삼았으니,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그분을 흠송하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약전』

1791.12.8. 참수. 전주 남문 밖. 32

제 5 처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며
당신을 드러내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루카 24, 30-31)

● 부활하신 주님,

당신이 빵을 쪼개실 때 두 제자는

그 익숙한 모습에서 당신을 알아보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되살아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주님, 생명의 빵이신 당신을 모실 때마다

저희도 당신의 제자며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아멘.

(잠시 묵상)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순교자 흥 히야친따

포졸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쳤다.

그의 첫마디는

“나는 천주교인이요.”

“소경인데 어떻게 천주교를 배울 수 있느냐?”

“나는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천주교 교리를 함께 먹었소.

나는 우리 천주를 버릴 수 없소. 그리고

오래전부터 천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고 있었소.”

달레 저, 『한국천주교회사』

1866.3.26. 교수. 공주. 59

제 6 처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예수님께서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루카 24, 36-39)

● 부활하신 주님,

당신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갈라진 마음 가운데 서시며

그들의 약한 믿음을 확신으로 이끄십니다.

당신의 손과 발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저희에게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잠시 묵상)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복자 김월중 스테파노

스테파노는 공주로 압송되기에 앞서 아우에게 편지를 보내, “나는 주님을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 너도 아무쪼록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계하여 훗날 천당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 아내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창조한 것이요.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죽으나 사나 주님의 명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죽은 후에 천당에 가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오. 나는 공덕이 없으므로 주의 도우심만 믿고 가려 하오.”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1866.12.16. 교수. 공주. 순교나이모름

제 7 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 21-23)

● 부활하신 주님,

당신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생명을 살리라 하십니다.

모질게 닫힌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라 하십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며

당신 제자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잠시 묵상)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토마스 신부는 낮에는 80리 내지 100리를 걸었으며 밤에는 고해를 듣고 또 날이 새기 전에 다른 교우촌으로 떠나야 했으므로 그간 달 동안 취할 수 있었던 휴식은 나흘 밤을 넘지 못했습니다”

페롱 신부가 1861년 7월 26일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예수 마리아 요셉, 리부아 신부님과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고 경애하올 신부님들 먼저 두 분 신부님들께 공동 편지를 보내드리는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합니다. 이 작은 편지를 두 분께뿐 아니라 모든 경애하올 신부님들께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박해의 폭풍을 피해 조선의 맨 구석 한 모퉁이에 갇혀서 교우들과 아무런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달 전부터 주교님과 다른 선교사 신부님들과도 소식이 끊겨져.....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계속 추적하는 포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포교지를 여러 신부님들의 끈질긴 염려와 지칠 줄 모르는 애덕에 거듭거듭 맡깁니다. 금년에 저의 사목 순회 도중 중단된 성무 집행의 연말 보고를 드립니다. 1,622명에게 고해성사를 주었고, 어른 203명에게 세례성사를 집전하였습니다. 신자들이 어른 임종자 13명에게 대세를 주었고, 예비자 398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지극히 비천하고 순종하는 종, 조선 포교지 탁덕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최양업 신부의 마지막 편지
1861.6.15. 진천 또는 문경. 40

제 8 처

예수님께서 토마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 27-29)

● 부활하신 주님, 당신은

믿고 싶기에 믿지 못하는 토마스의 손을 이끄십니다.

저희의 미온적인 마음도 이끄십니다.

사도들 위에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순교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 신앙을

저희가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굳건히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잠시 묵상)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성 손자선 토마스

성인은 충청도 홍주 거더리 마을에서 3대째 천주교를 믿으며 순교자를 배출한 신앙 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 다블뤼 안토니오 주교가 체포되고 며칠 후 포졸들이 거더리 마을에 들이닥쳐 신자 집을 샅샅이 뒤져 많은 물건을 빼앗아갔다. 며칠 후 손씨 집안의 누구든지 사람을 보내어 몰수된 물건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왔다.

용감한 손자선 토마스는 자진하여 덕산 관아에 나아가 찾아 온 사유를 밝혔다. 이때 관장이 그에게 천주교인인지 묻자 그는 자기가 천주교 신자임을 밝혔다. 성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관가에서 갖은 고문으로 그의 의지를 꺾으려고 애썼으나 모두 허사였고 곤장을 치다 못해 다리를 묶어 거꾸로 매달았다. 그리고 입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쏘아 부으며 조롱하였지만 굶하지 않자 덕산 관장은 그를 해미로 압송하였다.

관장은 특수한 수단을 생각하여 “네가 배교하지 않는다는 증표로 이빨로 너의 손의 살점을 물어뜯어 보아라.” 하자 토마스는 즉시 자신의 양팔을 물어뜯어 피가 흐르게 하였다.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1866.5.18. 교수. 공주. 22

제 9 처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하고 말하였다.

(요한 21, 4-7)

● 부활하신 주님,

빈 배를 몰고 오며 피로와 허탈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던져라.”

당신을 따르면서도 움츠리며 주저할 때
저희의 그릇된 생각과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잠시 묵상)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복자 유향검 아우구스티노

“유향검의 열성과 향구함은 남쪽지방 천주교의 뿌리가 되어 그곳에 언제나 열심한 신자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

다블뤼 주교 저, 『비망기』

처음 교리를 듣자마자 그의 올바른 영혼은 진리의 빛을 따랐고, 이를 지체없이 실천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가족들에게 이를 알렸는데, 그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가 지방(전주)에서 누리던 크나큰 존경과 영향력은 그가 친구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는 확실히 이 지방 교우공동체의 기반이었다,

다블뤼 주교 저,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1801.10.24. 능지처참. 전주 남문밖. 45

제 10 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들의 으뜸으로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 21, 17)

● 부활하신 주님,

당신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거듭 고백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열정을 다짐하는

저희의 고백을 받으소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성 김대건 안드레아

교우들 보아라.

이런 황망한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하여, 마치 용맹한 군사가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음같이 하여 싸워 이길지어다.

부디 서로 우애(友愛)를 잊지 말고 돕고, 아울러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환난을 물리칠 때까지 기다려라. 혹,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爲主光榮)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하여라.

할 말이 무수하되 거처가 타당치 못하여 못 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親口)하노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마지막 편지

1846.9.16. 군문효수. 새남터. 25

제 11 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 19-20)

● 부활하신 주님,
당신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당신은 저희를 부르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주저합니까?”

세례를 통해 새로 난 저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을 전하는데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잠시 묵상)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하느님의 종 이존창 루도비코

그는 한때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탁월하면서도 활동적이고 열성적인 재능으로 보아서 루도비코가 천주교의 대의에 가장 많이 봉사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람들은 오늘날 교우들의 대부분이 당시 루도비코가 입교시킨 사람들의 후손이라 헤아린다. 그래서 내포와 이 지방의 다른 마을들에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기이한 일이지만 조선 최초의 신부 두 사람이 조선의 옛 사도였던 이 인물의 모계 쪽 후손들이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할머니는 루도비코의 맏형이 낳은 딸이었다. 그리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어머니는 이존창의 조카 가운데 한 명의 딸이었다.

다블리 주교 저, 『조선 순교자 비망기』

1801.4.10. 참수. 공주. 42

제 12 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사도 1, 8-9)

●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두려워하는 마음에 용기를,
약해지는 마음에 믿음을,
혼란스러운 마음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늘로 오르십니다.
처음부터 계시던 곳, 당신의 자리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시니 찬미 받으소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저희도 땅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잠시 묵상)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복자 김광옥 안드레아

김광옥은 형장으로 가면서도 큰소리로 목주기도를 바쳤는데, 이를 본 구경꾼들은 한결같이 “참 이상한 일이군. 죽는 것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며 형장으로 가는 사람은 처음 보는군.”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김광옥은 “그건 내가 오늘 하느님 곁으로 가서 끝없는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니, 도대체 너는 죽는 게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 너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다. 네가 한마디만 하면 돌아가 그것을 다시 누릴 터인데 어째서 형벌 중에 쓰러지려고 고집하느냐?”

“삶과 죽음이 제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하느님을 배반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매를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결심이 서 있습니다. 만 번 죽을지라도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소 외, 『신유박해 순교자 전기집』순교는 믿음의 씨앗이 되고

1801.8.25. 참수. 예산. 60

제 13 처

사도들이 성모 마리아와 함께 성령을 기다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 1, 3-14)

● 부활하신 주님,

흩어지는 마음을 모으고 낙심하는 마음에 힘을 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그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간절함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여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게 하소서.
당신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잠시 묵상)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복자 이성례 마리아

이성례는 감옥으로 찾아온 아들의 머리를 빗겨주면서 “형장에
는 오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제는 다들 가거라. 절대로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잊지 마
라. 서로 화목하게 살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서로 떨어
지지 말고, 만형 토마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약전』

1840.1.31. 참수. 당고개. 39

제 14 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당신 제자들에게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사도 2, 1-3)

●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의 바람은 그들의 혼을 깨웠습니다.

가슴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은

제자들이 사명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한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하느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잠시 묵상)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성 정하상 바오로

감옥 안에서는 지쳐서 죽고, 문밖에서는 끊임없이 목을 베어 죽여 피눈물이 도랑을 이루고,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뻗어 오르며, 아버지는 자식을 부르고 형은 아우를 부르니, 마치 막다른 데로 쫓긴 사람이 몸을 돌이킬 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맑고 밝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천주의 참된 가르침을 증거하고 천주의 영광을 나타냄은 저희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이 몸 또한 머지않아 죽어야 할 몸입니다. 이렇게 감회를 말해야 할 때를 만나서 한 번 머리를 쳐들고 길게 외치지 않고 슬프게 입을 다물고 죽는다면, 산더미와 같이 쌓인 감회를 장차 백 대(代)가 지난다 하더라도 다 풀지 못할 것입니다.

정하상 저, 『상재상서』

1839.7.22. 참수. 서소문 밖. 45

마침 기도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20, 30-31)

✦ 기도합시다.

◎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의 힘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니 찬미하나이다.
저희의 모든 행동과 지향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고
모든 이가 오직 홀로 선하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